

더불어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6. 8. 12(수) 배포시	배포일시	2026. 8. 12.(수) 19:00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민주당, 정부에 농업 가뭄 상황 점검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

- 가뭄상황의 정확한 진단·대처, 예비비 포함한 충분한 가뭄대응 예산 편성 등

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6. 8. 12.(수) 12:30~13:30, 국회의원회관 302호
- 참석자
 - 윤준병 농해수정조위원장, 김성범·송옥주·문금주·문대림·이재관·주철현 의원

-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(위원장 윤준병)는 8월 12일, 최근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뭄상황과 대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받고, 매년 반복되는 가뭄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남부지역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하여 논물마름, 밭작물시듦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, 저수지 물채우기(128개소), 제한급수(836개소), 산불진화차량 운행 등 추진중인 대책과, 재해대책비용 추가 지원 등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.
- 농해수 정조위원들은 현재 일부지역의 심각한 가뭄상황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면서, ①저수율 및 토양유효수분률을 종합한 위기단계 판단기준 개선(현행 저수율 기준) 및 대응 매뉴얼

개선, ② 일률적으로 적용(70%)되는 저수지 사전 방류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, ③ 가뭄재난에 대응한 충분한 재난대책비 (목적 예비비) 편성 및 집행, ④ 현행 가뭄대비 정부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편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가뭄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.

- 또한 농해수 정조위원들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내년에도 유사한 가뭄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'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수지 준설 확대, 지하수담 설치 확대,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 근본적 가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.